

음악 비평 관할소

그람시에서 푸치니까지

줄리아 반노니 지음 – 2025년 5월 3일

📖

🔍

📄



La scena iniziale dello spettacolo Gramsci - Ph Nikolai Schmidt

OSSERVATORIO MUSICALE

괴를리츠에서 열린, 작곡가 코르트 마이어링의 신작 그람시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수녀 안젤리카》와 함께 공연되었다

괴를리츠, 2025년 4월 30일 – 12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작품이 마침내 무대에 올랐다.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독일에서 음악 교육을 받은 작곡가 코르트 마이어링의 오페라 《그람시》가 3월 22일 괴를리츠의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극장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이 오페라는 위대한 반파시스트 지식인이자 철학자이며 다방면의 문필가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삶을 중심으로 한 단막극이다. 20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병약한 몸이 점차 망가져 간 그의 인생은 도덕적 엄정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긴 세월 동안 단 한 곳의 이탈리아 극장도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이 신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린 곳은 바로 작센 주의 한 극장이었다. 운명의 아이러니일까, 오늘날 이 지역은 극우 정당인 독일연방을 위한 대안(AfD)의 본거지로 꼽힌다. 괴를리츠는 독일과 폴란드의 경계를 이루는 네이세 강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도보로 다리를 건너면 폴란드 측 도시 즈고젤레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괴를리츠는 국경 도시로서, 과거의 갈등을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증언하는 사명을 지닌 듯하다.

현재는 고인이 된 언론인 한스클라우스 융하인리히가 쓴 대본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15개의 장면으로 정리한다. 사르데냐의 길라르차에서의 어린 시절,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그의 성장기, 마테오티 암살 사건 이후 무솔리니와의 대립, 톨리아티 및 스탈린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어머니, 형인 젠나로, 아내 줄리아, 처형 타티아나와의 복잡한 감정이 무대 위에 그려진다. 이 모든 서사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그람시가 글쓰기를 도덕적 가치 전달의 매개체로 여겼다는 깊이 있는 자각이다. 한 시간이 약간 넘는 이 오페라에서 마이어링의 음악은 단지 대본의 표현력을 따르기에 그치지 않고, 장면마다 음향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관객의 주의를 끝까지 유지시킨다. 작곡가는 타악적인 충격과 음색의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전통적인 관현악 편성 외에도 다양한 민속 악기를 사용하며, 전자음향도 절제되고 목적성 있게 삽입되어 주로 성악이나 장면 전환을 보조한다.

성악 부분은 가수들에게 결코 쉽지 않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은 합창에 있다. 이 합창들은 대부분 그람시가 글쓰기에 부여한 의미를 강조하는 구절들과 맞물려 구성된다. 괴를리츠 극장의 오페라 합창단 외에도 사르데냐의 전통 성악 그룹 "Tenores di Bitti "Mailinu Pira""의 참여는 단순한 분위기 환기 수준을 넘어, 마이어링의 음악에 새로운 음색적 해석을 더했다. 마지막 장면은 무솔리니의 음성이 녹음된 채 Bandiera rossa의 선을 위에 겹쳐지며 끝나는데, 이는 역사적-감정적 차원의 성찰이 동시에 교차되는 정신적 충돌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람시를 진정으로 조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소는 올리히 케른이 이끄는 노이에 라우지처 필하모니의 연주였다. 케른은 생기 있는 추진력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동시에 구현해냈다. 주역인 바리톤 부안 리는 거의 쉬지 않고 무대를 장악하며 깊은 감정이입을 보여주었고, 타티아나 역의 리사 오르투버는 복잡한 콜로라투라를 안정감 있게 소화했다. 줄리아 역의 요한나 브라우트는 그 어린 내면을 설득력 있게 노래했고, 어머니 역의 이보네 라이히는 비탄에 젖은 메조소프라노로 중심을 잡아주었다. 남성 조역들은 다양한 인물들 소화했는데, 아룬 장은 형 젠나로와 톨리아티 역을 모두 명확하고 균형 있게 표현했고, 한스-페터 슈투루페는 무솔리니와 스탈린, 그리고 냉정한 파시스트 군의관까지 연기했으나, 다소 음색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연출가 베른하르트 F. 로게스는 교훈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밝은 무대를 창조했다. 고정된 무대 구조는 기동적인 액자처럼 설계되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인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배경에는 사르데냐의 풍경 사진과 함께 그람시의 자필 원고가 겹쳐 투영된다. 그 자필은 주인공의 의상 위에도 그려져 있다.

작품이 단막극이기에, 푸치니의 《수녀 안젤리카》와 함께 상연되었다. 배경으로 투사된 사르데냐의 풍경을 통해 장면 간 연결성을 제시하며, 수감된 감옥과 수녀원의 유사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이번에도 케른의 지휘는 섬세하면서도 명확했고, 로게스의 연출은 여러 면에서 참신한 통찰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에 수녀 하나가 도망치는 장면으로, 감옥에서 결코 석방을 요청하지 않았던 그람시의 단호한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잘 짜인 출연진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은 수녀 안젤리카 역의 파트리치아 벤쉬였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발성과 강렬한 프레이징으로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고, 프린치페사 고모 역의 미할 도른은 품격 있는 알토 음색을 선보였다. 수녀원장과 젤라트리체 역으로는 브라우트와 라이히가 다시 무대에 섰다.

그람시의 수많은 문필 활동 중에는 음악 비평도 있었다. 대중 장르의 성공 원인을 탐구하던 그와 같은 지식인은 푸치니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다. 과연 이번 병치가 그람시의 마음에 들었을까? 분명 그의 음악적 취향에는 맞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사고와 논쟁의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바로 이런 점이야말로, 그람시다운 것이 아닐까.

줄리아 반노니

La scena dello scontro in parlamento – Ph Nikolai Schmidt



Articolo precedente

Turismo Magazine – 3/5/2025

Articolo successivo

Fontana "Libertà di stampa pilastro essenziale della democrazia"

Giulia Vannoni

Ultimi Articoli

Germania, Merz eletto cancelliere al secondo turno

Merz non raggiunge la maggioranza nel Bundestag per diventare cancelliere al primo turno

Bayer celebra i suoi 125anni in Italia al fianco dello sport

Roccella "Transizione demografica priorità assoluta per il Paese"

Prodotti

Lavorare pedalando In sella alle biciclette da lavoro €15.00

Un angelo venuto dal sud. Suor Clementina al secolo Maria Potenza Zagari €25.00

Abbonamento under 30 a ilPonte €10.00 I nostri contatti

Rimini: uno sviluppo diverso è possibile €10.00

Casalecchio di Rimini Fra antichità e Medioevo €15.00